

News

지난달 가계대출 0.02% 늘어 증가 주춤

매일경제

<https://zrr.kr/8wjy>

지난 12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달 대비 0.02% 증가에 그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및 개인들이 연말 성과급과 만기 예금 등을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상황에 나선 영향

'연 3.2%' 전세대출까지 등장…인뱅크 '불붙은 금리 경쟁'

한국경제

<https://zrr.kr/aKWD>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전세대출 금리 인하 경쟁이 가열 … 케이뱅크의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최저금리는 연 3.2%로 국내 최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담보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들이 비교적 규제가 덜한 전세대출 시장을 공략

5대 금융지주 회장이 꼽은 금융권 리스크는 "부동산 PF"..외형 확대보다 내실 다진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Njlf>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갑진년 새해 경제·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지목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수요 부진에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은행이 지난해와 같은 이자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

주택대도 대환대출·실손보험 전산 청구…갑진년 바뀌는 금융제도

더팩트

<https://zrr.kr/Cqdu>

2024년부터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 가능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매년 공개하는 제도도 시행

보험업권 '상생금융' 바람… 올해 본격 추진

한국보험신문

<https://zrr.kr/CI2M>

올해부터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출시,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달부터 소득단절 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이 출시 … 2월부터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시행

손보사 새해 조직개편 키워드는 '온고지신'

데일리안

<https://zrr.kr/IuOD>

손해보험사들이 새해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주력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시장으로도 확장

삼성화재는 장기, 자동차부문 산하에 헬스케어사업팀, 모빌리티기술연구소 등 설치하며 미래 신사업에 추진력을 더함

'태영發' 자금조달 악화 우려…채안펀드 20조 → 30조 검토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hqIJ>

지난달 넷째 주 PF-ABCP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넷째 주에 비해 A1 65%, A2 47% 감소

단기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정부는 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연말 개인 '매물 폭탄' 없었다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Uaqj>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준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주춤 … 코스닥 시장에선 순매수 현상도 발생